

〈쌀 나오는 바위〉 설화의 지역적 전승양상과 의미

류명옥*

|| 차례 ||

- I. 서론
- II. 〈쌀 나오는 바위〉 설화의 전승양상
- III. 설화의 지역적 특징과 의미
- IV. 결론

【국문초록】

〈쌀 나오는 바위〉 설화는 전국적으로 널리 전승되는 이야기이다. 이 설화의 표면적 의미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경계와 교훈이 담긴 설화이다. 하지만 교훈성을 지니는 여타 설화들이 현재 전승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본다면 지금까지도 구연의 현장에서 전승되고 있는 〈쌀 나오는 바위〉 설화의 전승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쌀 나오는 바위〉 설화는 쌀이 나오는 양과 바위 구멍을 찌시는 행위의 이유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작은 양으로 여러 명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구연하는 유형이 있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유형이 있다. 이러한 두 유형의 설화들은 대체적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나누어 전승되는 점도 이 설화의 의미를 밝히는데 중요한 의미가 된다.

전라도에 전승되는 〈쌀 나오는 바위〉 설화는 쌀이 나왔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여 자신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성성을 획득하는 특징을 지닌다. 쌀이 나왔던 장소에 대한 신성성을 부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억지로 얻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교훈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고 여기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강사.

경상도에 전승되는 <쌀 나오는 바위> 설화는 유명한 절이나 역사적 인물이 결합되어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주로 지명 유래담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절이나 역사적 인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지명 유래담이나 역사적 인물과의 결합으로 교훈적인 성격이 약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불교적 진리, 충신과 열녀가 실현한 가치관과 같은 정신적·문화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설화가 다양한 의미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쌀 나오는 바위> 설화의 전승이 욕심을 부리는 행위에 대한 교훈과 경계의 의미로만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설화 전승 현상은 설화를 통해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의미가 된다.

주제어: 구비설화, 쌀 나오는 바위, 지역 차이, 전라도, 경상도, 지역공동체

I. 서론

인간이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다. 특히 먹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전국적으로 널리 전승되고 있는 설화로는 <쌀 나오는 바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 설화는 표면적으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교훈을 전달해 주는 설화이다. 그러나 교훈성을 지니는 설화들이 널리 전승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설화는 여러 지역에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설화가 여러 지역에 널리 전승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쌀 나오는 바위> 설화에 대한 연구는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른 설화들과 함께 연구되어 왔다. <쌀 나오는 바위> 설화에 대한 초기 연구는 암석 전설을 분류하는 연구¹⁾로 시작되었으며, 전승 집단의 의식 구조를 살펴보는 연구²⁾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쌀 나오는 바위 유형 설화 전승 집단의 의식 구조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쌀’이라는 주식이 전승 집단에게 중요한 먹거리라는 점에서 설화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쌀이 나오는 양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과 사람에게 맞게 나오는 분량에 대해서는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쌀을 소재로 활용한 이유와 쌀이 나오는 분량이 다른 이유가 구연자들에게 어떠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 있다. 이 유형 설화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 유형 설화의 대체적인 성격이 밝혀졌다. 이후에는 <쌀 나오는 바위> 설화를 미혈전설로 명명하여 집단의식을 밝히는 연구³⁾와 미혈전설 유형의 구조와 의미를 밝히는 연구⁴⁾들이 이루어졌다. <쌀 나오는 바위> 설화가 널리 전승되고 있어 이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화하는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들이다. 위의 연구들은 본고에서 다루는 설화 유형 외에도 쌀이 나타나는 설화를 중심으로 설화에서 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쌀이라는 먹을 것에 대한 의미는 앞의 연구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화를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

1) 유증선, 「암석신앙전설」, 『한국민속학』 제2호, 민속학회, 1970, pp.53-68.

2) 강진옥, 「한국전설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pp.1-287.

3) 최상수, 『한국민족전설의 연구』, 성문각, 1985, pp.1-256.

4) 황인덕, 「미혈전설의 구조와 의미고찰」, 『강주섭선생 회갑기념논총』, 경인문화사, 1992.

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쌀 나오는 바위> 설화들을 모아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개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⁵⁾ 이 연구는 그간 조사되고 채록된 <쌀 나오는 바위>의 설화들을 모아서 설화의 구조와 의미를 밝혀서 종합적인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쌀 나오는 바위> 설화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연구이며, 지역적인 특징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정도로 소략하게 논의하고 있어 지역적 차이를 어떻게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서사적 변이 양상을 연구하면서 쌀 나오는 바위를 다룬 연구⁶⁾가 있다. 이 연구에서 쌀 나오는 바위가 다른 이야기와 결합하여 서사 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쌀 나오는 바위 설화보다 강한 전승력을 지닌 이야기가 변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쌀 나오는 바위> 설화의 구조나 특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쌀’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과 설화 속에 스님이 더 많은 쌀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행위에 대한 경계의 의미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 하지만 설화가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전승되기 위해서는 설화를 전승하는 전승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 특히 오랫동안 널리 전승되는 이야기들은 신이한 이야기 또는 재미와 흥미를 주는 이야기, 자신의 삶과 관련성이 있는 이야기일 때 계속해서 전승될 수 있다.⁷⁾

5) 최철배, 「<쌀바위 전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pp.1-97.

6) 장영창, 「이야기의 서사적 변이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59집, 우리문화회, 2018, pp.211-238.

7) 현재 전승되는 설화들을 보면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시집살이나 살아온 인생담의 이야기를 주로 전승하고 있으며,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처럼 <쌀 나오는 바위> 설화가 여러 지역에 전승될 수 있다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간에게 중요한 먹을거리인 ‘쌀’이라는 것의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승되는 설화를 보면 쌀 나오는 구멍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스님의 존재와 욕심이라는 의미가 사라져 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교훈과 경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쌀’이라는 것의 의미와 더 이상 쌀이 나오지 않는 장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의미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쌀 나오는 바위> 설화가 지금까지 널리 전승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쌀 나오는 바위> 설화는 기존 연구에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성격을 지닌 설화이지만 이러한 연구로 인해 이 유형 설화는 더 이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훈성의 의미로 설화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설화의 의미가 하나의 의미로만 읽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유형 설화의 의미를 좀 더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쌀 나오는 분량으로 이 유형 설화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지역적인 차이를 보인다. 설화 유형으로 지역적 차이를 설명하여 단정한다는 것이 많은 한계점을 지니겠지만 설화가 지역성을 반영하여 전승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지역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역적 특징들을 통해 다른 유형 설화들과 함께 논의한다면 거시적인 전망에서 지역적 특징을 밝힐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한다. 또는 언어유희의 이야기나 노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을 주로 구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쌀 나오는 바위〉 설화의 전승양상

〈쌀 나오는 바위〉 설화는 절이나 암자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스님이 우연히 바위에서 쌀이 나오는 것을 보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더 많은 양의 쌀을 얻고 싶어서 쌀 나오는 바위 구멍에 막대기나 부지깥이로 쭈셔서 더 이상 쌀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조사된 〈쌀 나오는 바위〉 설화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제 목 | 제보자 | 대계번호 |
|----|-----------------------|---------|-------------|
| 1 | 쌀이 나왔다는 절(1/2) | 이재득(남) | 4-1 (충남 당진) |
| 2 | 쌀 나오는 바위 | 이영래(남) | 4-1 (충남 당진) |
| 3 | 쌀이 나오는 바위 | 이종민(남) | 4-2 (충남 대덕) |
| 4 | 현사(顯寺)의 쌀 바위 | 오영석(남) | 4-2 (충남 대덕) |
| 5 | 단암사의 쌀 나오는 구멍(米穴) | 이주섭(남) | 5-2 (전북 전주) |
| 6 | 진목대와 쌀 나오는 구멍 | 이장수(남) | 5-2 (전북 전주) |
| 7 | 욕심 때문에 쌀이 안 나오는 바위 구멍 | 이영현(남) | 5-3 (전북 부안) |
| 8 | 금골산 절에 얽힌 전설 | 이성광(남) | 6-1 (전남 진도) |
| 9 | 쌀 나오는 구멍 | 김정균(남) | 6-2 (전남 함평) |
| 10 | 월악산 주변의 전설(1/2) | 정계환(남) | 6-2 (전남 함평) |
| 11 | 서불암 전설 | 마영식(남) | 6-3 (전남 고흥) |
| 12 | 쌀 나오는 구멍(1) | 박영희(여) | 6-5 (전남 해남) |
| 13 | 쌀 나오는 구멍(2) | 박영희(여) | 6-5 (전남 해남) |
| 14 | 불당골 전설 | 이학룡(남) | 6-5 (전남 해남) |
| 15 | 쌀 나왔던 영천굴(1) | 혜권스님(남) | 6-8 (전남 장성) |
| 16 | 쌀 나왔던 영천굴(2) | 지종기(남) | 6-8 (전남 장성) |
| 17 | 영천굴과 약사암 전설 | 정기수(남) | 6-8 (전남 장성) |
| 18 | 황어굴 전설(쌀 나오는 구멍) | 정순일(남) | 6-9 (전남 화순) |

| | | | |
|----|------------------------------|--------|--------------|
| 19 | 도가니바위와 행자의 욕심 (쌀 나오는 구멍) | 정관주(남) | 6-9 (전남 화순) |
| 20 | 쌀 나오는 굴 | 문병주(남) | 6-10 (전남 화순) |
| 21 | 쌀 나온 구멍바위 | 김서운(여) | 6-12 (전남 보성) |
| 22 | 석굴암의 쌀 나오는 구멍 | 이원익(남) | 7-1 (경북 월성) |
| 23 | 햇빛을 받고 낳은 아들, 쌀 나오는 구멍(1) | 김진성(남) | 7-2 (경북 월성) |
| 24 | 달빛을 받고 낳은 아들, 쌀 나오는 구멍(1) | 박동준(남) | 7-2 (경북 월성) |
| 25 | 쌀 나오는 구멍 | 허수선(여) | 7-2 (경북 월성) |
| 26 | 쌀 나오는 구멍, 심승령(1/2) | 권태방(남) | 7-6 (경북 영덕) |
| 27 | 쌀 나오는 구멍 | 정세원(남) | 7-10 (경북 봉화) |
| 28 | 국수 대신 물이 나오는 쌍학사의 혈 | 권결하(남) | 7-17 (경북 예천) |
| 29 | 쌀 나오는 바위 | 김창원(남) | 8-5 (경남 거창) |
| 30 | 사리암 쌀구멍의 유래 | 설삼출(남) | 8-8 (경남 밀양) |
| 31 | 가지산(伽智山) 쌀바위 | 김석보(남) | 8-12 (경남 울주) |
| 32 | 은을암 쌀바위 | 손영수(남) | 8-13 (경남 울주) |
| 33 | 쌀 나오던 대운산 양급할머니 샘 | 김인조(남) | 8-13 (경남 울주) |
| 34 | 가지산(伽智山) 쌀바위 | 김도경(여) | 8-13 (경남 울주) |
| 35 | 쌀이 나온 약수터 | 원우성(남) | 8-14(경남 하동) |
| 36 | 불일암 전설 | 김개봉(남) | 8-14 (경남 하동) |
| 37 | 쌀 나오는 구멍 | 안용인(남) | 9-1 (제주시) |

<쌀 나오는 바위> 설화의 내용은 서로 비슷한 구조로 전승되고 있다. 설화의 기본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① 스님이 우연히 절 근처에 있는 바위에서 쌀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다.
- ② 바위에서 떨어지는 쌀은 절에 살고 있는 사람 인원수(한 사람)에 맞게 나온다.

- ③ 절에 있던 스님은 쌀이 더 많이 나오도록 막대기로 구멍을 쑤신다.
 ④ 그 이후로는 쌀이 나오지 않는다(물만 나온다).

설화에서 스님은 바위에서 나오는 쌀로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주어지는 하루 분량의 쌀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먹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더 이상 바위에서 쌀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이러한 <쌀 나오는 바위> 설화는 스님이 욕심을 부리는 행위에 중점을 두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교훈과 경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쌀 나오는 바위> 설화를 단편적으로 보면 교훈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쌀 나오는 바위> 설화의 주체는 설화 2편을 제외하고 대부분 스님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주체의 행위 결과 또한 바위 구멍을 쑤셔서 쌀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동일한 내용 외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살펴보면 쌀이 나오는 양과 스님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이다. <쌀 나오는 바위> 설화에서 쌀 나오는 양과 스님이 욕심을 내는 이유는 서로 인과적인 관련성을 지닌다. 쌀 나오는 양의 부족함은 스님이 욕심을 내도록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설화는 주체의 행위 동기 이유에 따라 설화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체의 행위 동기 이유는 이 설화의 의미를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먼저, 쌀이 나오는 양에 따른 전승 양상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앞의 『한국구비문학대계』 목록의 8~21번까지 설화에서 쌀은 절에 살고 있는 인원수에 맞게 나온다고 한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바위에서 꼭 종이 하나 먹을치 쌀이 나왔다고요.

바위 구멍에서. 많이 먹을치도 아니고 꼭 한나 먹을치가 나왔다 그란디. 한 루는 승려가 한 분이 와가지고 말이며 떠나야 될텐데 안 떠나고 자게 됐어. 자게 되니까 쌀이 한나 먹을치밖에 안 나온다 좌우간 한나가 누가 굶든지 굶어야 될 것이고⁸⁾

그것을 인자 황어굴이라. 근디 인자 그 중 그 양반이 바우에다 대고 뭘 도술을 했는가, 이제 바우에서 꼭 자기 한 꼬니 밥 해 묵을 만치, 이제 쌀이 나와요. 쌀이 뽀뽀뽀뽀 나와갔고, 딱 그 놈 한 꼬니 해 먹어버리면 딱 알 맞아. 하도 인자 손님이 왔든가 어쩐가 껌껌하니까, 그냥 아 그걸 그저 굴을 쑤서부렸답디다.⁹⁾

위의 설화를 보면 절에 스님 1명이 살고 있으면 항상 1인분만 나오고, 2명이 살고 있으면 2인분의 양만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절에 객승이나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도 절에 살고 있던 인원수만큼만 쌀이 나와서 객승이나 손님의 몫은 나오지 않는다고 구연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한국구비문학대계』 목록의 22~36번까지의 설화에서는 쌀이 인원수대로 나온다고 하여 앞의 이야기와 차이를 보인다.

절에 손이 하나 올라치면 하나이 요(料)가 쌀이 똑똑 떨어져 하나이 요가 나오고, 둘이 오면 둘이 요가 나오는데, 상좌 아가 쌀 받으러 갔다가, 이머 한 낱씩 똑똑 떨어지이 시월이 없어. 망치로 가주 얼른 쏘아지라고 때리 조뿌고, 때래주이, 그래고 고마 다시는 안나오드란다.¹⁰⁾

거 쪼매한(자그마한) 암자가 있어가주고 중들이 뭐 셋도 있고 둘도 있었는데, 둘이 있으면 둘이 요가 나오고, 서이 있으면 서이 요가 인제 이 굴에서 나왔다. 아, 그래 인제, 내제(나중에) 그 어떤 심술궂은 중이 고마 거꼴 디리 쑤싯부레가주고 그 내제는 안 나왔다 이라드라마는. 그런 전설이 있대요.¹¹⁾

8) 『한국구비문학대계』 6-5(전남 해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 『한국구비문학대계』 6-9(전남 화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0) 『한국구비문학대계』 7-6(경북 영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위의 설화에서는 절에 살고 있던 인원수와 관계없이 객승이나 손님이 찾아와도 손님이 먹을 몫까지 쌀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절에 살고 있던 스님과 객승, 손님까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온다는 점에서 앞의 설화보다 풍족한 양의 쌀이 나온다.

이처럼 <쌀 나오는 바위> 설화들을 쌀이 나오는 양에 따라 나누어 살펴 보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양의 쌀이 나오는 이야기와 인원수에 맞도록 쌀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원에 관계없이 일정한 양의 쌀만 나오는 경우 여러 명이 나누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먹을 수 없다. 하지만 인원수에 맞게 쌀이 나오는 경우는 모자라지 않게 먹을 수 있다. 스님의 구체적인 행위는 막대기로 바위 구멍을 쑤시는 이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바위에서 꼭 중 하나 먹을치 쌀이 나왔다고요. 바위 구멍에서. 많이 먹을지도 아니고 꼭 한나 먹을치가 나왔다 그란디, 한루는 승려가 한 분이 와가지고 말이여 떠나야 될텐데 안 떠나고 자게 됐어. 자게 되니까 쌀은 한나 먹을치밖에 안 나오디 좌우간 한나가 누가 굶든지 굶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조금 더 나오라고서는 주인 대사가 작대기로 구멍을 쿡쿡 쑤셔 놔드니 그놈 나온 놈도 안 나와 부렀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¹²⁾

이 이야기 역시 목록의 8~21번까지 동일하게 나타난다. 손님이나 객승이 찾아와서 먹을 양이 평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쌀 나오는 바위 구멍을 쑤시게 된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화수분과 같은 쌀 나오는 바위를 통해 넉넉하게 먹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평소에는 혼자 먹을 양만 나오다가 손님이 오면 손님 인원수대로 나

11) 『한국구비문학대계』 7-10(경북 봉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2) 『한국구비문학대계』 6-5(전남 해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오는 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양의 쌀을 얻기 위해서 구멍을 쭈시는 경우가 있다. 이 이야기도 목록 22~36번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래 뭐가 사람이라 카는 기 욱기(慾氣)가 나기 때문에, 구무가(구멍이) 좀 더 크몬 쌀이 많이 안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구무로 마 꼬쟁이로 히비, 히비뺨는 기라.¹³⁾

위의 설화에서는 각자 인원수대로 먹을 양이 충분히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먹고 싶어서 쌀 나오는 바위의 구멍을 쭈신다. 목록 22번~36번까지의 설화에서 많은 양의 쌀을 얻기 위해서 구멍을 쭈시는 행위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앞서 <쌀 나오는 바위> 설화를 살펴보면, 쌀 나오는 양과 바위에 구멍을 쭈시는 행위의 이유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절에 손님이 와도 한 사람이 먹을 양만 나온다는 이야기를 보면 『한국구비문학대계』 목록 중에서 8~21번에 해당하는 설화로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전라남도 고흥, 해남, 장성, 화순 보성, 진도, 함평 등의 지역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구연된다. 반면에 매일 인원수에 맞는 분량이 주어지지만 더 많은 양을 얻으려고 망치로 바위를 때리거나 바위 구멍을 쭈시는 이야기는 목록 22~36번에 해당하는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전승되고 있다. 경상북도 월성, 영덕, 봉화, 예천과 경상남도 거창, 밀양, 울주, 하동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쌀 나오는 바위> 설화가 지역적으로 두

13) 『한국구비문학대계』 8-13(경남 울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설화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설화를 구연하는 구연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승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역적 특징을 보편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지역과의 관련성과 연계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Ⅲ. 설화의 지역적 특징과 의미

앞서 <쌀 나오는 바위> 설화의 전승 양상을 쌀이 나오는 양과 스님이 구멍을 쫓시는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쌀 나오는 바위> 설화는 바위에서 쌀이 나온다는 것이 설화의 기본 내용이지만 이 설화는 잘 알려진 절의 유래담이나 지역 전설과 같은 이야기와 함께 결합되어 전승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쌀 나오는 바위> 설화에서 스님이 쌀을 더 얻기 위해 바위 구멍을 쫓다가 더 이상 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스님의 등장은 이 설화가 절과 관련된 이야기와 결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옛날 약사, 약사절에서 지금 약사가 있어. 절에 뒤안에 바우가. 요, 요렇게 있어. 요렇게 바우가 요렇게로 거기서 바우가 거기서, 거기 절에서 나왔답니다. 쌀이 나오드래요. 그런데 중이 둘이면 꼭 둘 목을 쌀만 나와. 더 이상은 안 나와. “야 이놈의 구녕만 쪼개 더 나왔다면 손님도 주고 나도 먹을 게 아니냐?” 해가지고 부지땡이로 쫓셨다는 말이 있어. 그 뒤로는 안나와 버렸어. 옹지나 그냥 놔두면 먹을 것 아니며. 쌀은 그 뒤로는 쌀은 그칠뿐이고 피만 졸졸 지금도 현상이 있대요. 그 흥치가 있어요. 피가 나왔던 자국이... 그 구녕자리에 가서 시뻘건히 묻어가지고 있어. 지금도 물이 흐르는데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수량이 줄거나 마르지 않고 장마가 저도 똑같은

양의 물이 흐르고 더 나오거나 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¹⁴⁾

위의 설화에서 쌀 나오는 바위가 있는 곳이 약사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영천암 또는 영천굴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약사암 또는 영천굴이라고 불리는 이 암자는 전라남도 장성 백양사의 부속암자이다. 백양사는 백제 시대에 여환조사가 창건하였으며, 조선 선조 때에 환양선사 꿈에 흰 양이 설법을 듣고 환생하였다고 하여 백양사라고 한다는 유래담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백양사의 뒤편에 있는 영천굴에 쌀 나오는 바위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하지만 백양사와 영천굴과의 관련성 있는 이야기는 전승되지 않는다. 두 이야기가 개별적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영천굴에 대한 이야기는 영천굴에 있는 약수물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

영천굴에 스님이 구멍을 쭈시자 쌀은 나오지 않고 물만 나오고 있으며 지금도 병에 효험이 있는 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물이 나오기 전에 피가 나왔다고 하면서 지금도 자국이 남아 있다고 한다.¹⁵⁾ 설화를 구연하는 구연자는 지금은 구멍에서 피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보면 구멍에서 피가 나온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사실의 이야기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피와 물이 나왔던 장소라는 장소의 신성성 획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약사암 또는 영천굴이 <쌀 나오는 바위> 설화와 결합되면서 구멍을 쭈서

14) 『한국구비문학대계』 6-8(전남 장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5) 바위는 험하고 척박하며 감당하기 힘든 존재로서 이미지를 지니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공이 ‘필요한 만큼’ 주어진다. 주어지는 바에 순응하면 자연은 필요한 바를 지속적으로 전해주지만 필요 이상의 것을 무리하게 얻어내려면 차가운 보복으로 나타난다. 바위 구멍에서 흘러나왔다는 ‘피’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공격적 접근이 가져오는 파탄적 결과를 상징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신동훈, 「설화 속 화수분 화소의 생태론적 고찰」, 『구비문학연구』 제39집, 한국구비문학회, 2014, p.13 참조.

서 쌀이 나오지 않고 피가 나오는 신성성을 강조하면서도 ‘피’라는 요소를 통해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불암. 그 절이 층암절벽 위로가 절이 있었거든. 그런데 거기다 절이 있었다 말시. 지금 층암터 그 절을 허물은 제가 한 사십 년 전에 허물었구마. 이 능가사예다가 지금 중창을 했거든, 알고보며는 그 서불암을, 가만 그대로 보존해 둘 절을, 그때 주지가 잘못 해갖고 그래부렀어...(중략)... 하로 어디 땡땡이중이 한나 그걸 들어 와갖고는 같이 중질하고 있자 그런께, 먼침 있던 중 말이, “여기는 부처님의 지시가 중 한나만 여 있으란 데제 들도 셋도 못 있으란 딘디, 당신 가라.” 고. 그래갖고 밤에 구멍을 푹푹 뚫어거든. 인자 쌀은 안 나와빨고, 결국 동냥질해다 묵었지, 탁발해서. 그 절이 아깝게도 사십 년 전에 능가사 중창한다고, 전부 뜯어 가부렀다 말세. 지금은 터마 있네.¹⁶⁾

위의 설화에서는 서불암이라는 절이 있었는데 절의 주지가 쌀 나오는 구멍을 쭈셔서 절을 보존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한다. 서불암은 전라남도 고흥 능가사의 부속암자이지만 지금은 터만 남아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설화는 절이 폐사된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폐사된 후에 방치되었다가 능가사를 중창할 때 완전히 소실되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쌀 나오는 바위> 설화와 절의 폐사이유가 결합하여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으며, 절을 폐사시킨 스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정한 양의 쌀만 나와서 바위 구멍을 쭈신 이야기는 영천굴이나 서불암과 같은 절이나 암자와 결합되어 구연되고 있다. 이처럼 암자와 결합된 이야기는 절이나 암자의 유래담과는 큰 관련성을 지니지 않으며 바위에 구멍을 쭈시는 행위와 쌀 대신 나오는 물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설화들은 부정적인 결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

16) 『한국구비문학대계』 6-3(전남 고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며, 부정적인 결말은 일정한 양의 쌀만 나와서 넉넉하게 먹을 수 없더라도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논의에서 언급된 <쌀 나오는 바위> 설화가 가지고 있는 교훈적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지만 교훈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면적 의미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암자에서 효험 있는 물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절이 폐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실제 일어난 사실 또는 실제 존재했던 장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은 물이 나오거나 흔적만 남아 있지만 예전에는 쌀이 나왔던 곳이라고 확신하면서 구연하고 있다. 특히 지금도 물이 나오는 곳에는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 피가 나온다고 하여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신성한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절이 폐사된 자리에 지금 다른 절이 세워져 있으며, 지금 절이 세워지기 이전의 절은 구연자의 어린 시절에 보았던 절이라고 하여 사실성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위의 예시 외에도 전라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구연한다. 쌀이 나왔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구연하는 구연자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자신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실제적 사건 또는 실제 존재했던 장소를 강조하는 것은 <쌀 나오는 바위> 설화를 자연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이나 암자에 대한 설명보다는 물의 영험함, 절의 터가 바뀌는 장소에 대한 인식 등을 보면 자연적 속성 또는 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쌀 나오는 바위> 설화가 절이나 암자와 결합하면서 교훈적 성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전라도에 전승되는 이야기를 보면 바위 구멍을 쭈신 행위의 결과가 부정적이다. 쌀이 나왔던 자리에 '피'가 나왔다는 것과 절이 폐사되어 없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스님이 갖추

어야 하는 자세에 대해 교훈성을 일깨워준다. 비록 일정한 양의 쌀이 나와서 넉넉하게 먹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행위는 응징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다.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억지로 얻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이러한 인식은 인과응보와도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설화 구연자들의 구연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¹⁷⁾

다음으로 경상도 지역에 전승되는 <쌀 나오는 바위> 설화에서는 쌀 나오는 바위 이야기가 절이나 암자와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라도 지역과 비슷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다르게 나타난다.

가조 수월리 가만 저 이전에 고견사(계남)이라 카는 절이 있었는데 계나무에서 고견 아비라꼬 암자라꼬 암자가, 큰 암자가 있었어. 그 암자 근방에는 그래 쌀 나오는 바위가 있었습시다. 그 뒤에 어찌됐던지 망했뿌리고 절은 없어지고 그 암자에 가가지고 중이 모도 사는데 그 당시 이상대사(의상대사)는 의상봉에서 설법을 했다고도 하고 고견사에 처음 계시더랍니다.¹⁸⁾

은을암 카는 그 절에 쌀이 똑 하내(한사람) 목을 만치 하루 종일 나오는 것이, 하내 목을 만치 쌀이 나와. 그래 인자 쌀로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사람이 목구 이카며 살았다. 그래 구무가 좀 더 크몬 쌀이 많이 안 나오겠나

17) 화수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건으로 인간의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이 만들어낸 상상물이다. 화수분을 위협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계했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망을 위협한 것으로 인식하고 경계했다는 것을 말하고 불필요한 욕망의 절제야말로 설화 향유 집단의 윤리 덕목의 실천임을 강조하여 나타낸 것이다(김복순, 「화수분설화에 투영된 기저 의식과 담론 양상」, 『동아시아고대학』 제31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3, pp.50-51 참조).

18) 『한국구비문학대계』 8-5(경남 거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싫어가지고 구무로 마 꼬쟁이로 히비뻬는기라. 히빈 뒤에는 마 물이 쫄쫄 나와. 그 뒤로 새가 물 속으로 드갔다가 안 나와서 은을암이라 지었는데, 아주 지대가 높으답니다.¹⁹⁾

위의 두 설화는 <쌀 나오는 바위> 설화가 유명한 인물이나 지명 유래담과 결합되어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설화에서는 고견사라는 절의 암자에 쌀 나오는 바위가 있는데 그 절은 의상대사라는 잘 알려진 인물이 있었던 장소라는 것을 함께 구연하고 있다. 의상대사라는 잘 알려진 인물과의 결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견사를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절의 유래담과 함께 의상대사가 있을 때 쌀이 나오는 바위가 있었다는 이야기의 결합은 스님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하도록 한다. 의상봉에 쌀이 나오는 바위가 있지만 절이 어떻게 해서 폐사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구연하지 않고 있어 전라도에 전승되는 설화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설화에서는 지금은 울산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지만 조사 당시에 울주라고 하여 그대로 표기하였다. 이 설화에서는 은을암이라는 절에 쌀 나오는 바위가 있었지만 스님이 구멍을 쭙신 이후로 물이 나왔다고 하여 다른 설화와 비슷하게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 뒷부분에 보면 그때 나온 물에 새가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서 은을암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하여 쌀 나오는 바위 이야기가 지명 유래담과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은을암에 대한 지명 유래담은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신라 충신 박제상의 부인과 두 딸의 닳이 새가 되어 바위틈으로 숨어서 그 바위를 은을암이라 하여 그 근처에 절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²⁰⁾ 이 설화를 구연하는 구연자는 박

19) 『한국구비문학대계』 8-13(경남 울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상의 부인과 딸의 이야기를 빼고 물에 숨었다고 하여 절의 유래담을 설명하고 있다.

그레가 석굴암 쪼맨은 절이라도, 침에는 쪼그맨엿그던. 쪼맨은 절에 그한 저저 지바이서 요 쌀 하나씩 떨어진기 전부 하나 요는 되그던. 냉개는 언놈이 와가주, 폭! 쭈시이 머 엔 떨어지고 영 물이 떨어져. 그레가주 냉재 멈치해 있는 데 현모(現夢)을 대가, 수리해 즐라고 그리 왜정 때 그레 애했는교.²¹⁾

경주의 주요한 문화재인 석굴암과 <쌀 나오는 바위> 설화가 결합된 내용을 보면 쌀이 나오는 바위보다는 석굴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굴암에서 더 이상 쌀이 나오지 않고 물이 나온 후에 석굴암을 수리해 준다는 현몽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 외에도 석굴암을 수축(修築)한 이후에 바위에서 쌀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구연하는 것을 보면 스님이 구멍을 쭈시는 행위가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쌀 대신 물이 나오는 석굴암을 수리하고 증축하여 지금은 크고 완전한 절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이 구연의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²⁾ 쌀 나오는 바위가 석굴암을 증축하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석굴암은 설화가 구연되는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고, 구연자는 지역 공동체 구연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절의 유래담과 결합하여 <쌀 나오는 바위> 이야기의

20) 박다원, 『삼국유사』 <내물왕 김제상>과 그 파생 열부설화의 전승의식비교, 『국학 연구논총』 제20집, 태민국학연구원, 2017, pp.162-169 참조.

21) 『한국구비문학대계』 7-2(경북 월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2) 석굴암의 증축(增築)과 수축(修築)에 대한 이야기는 석굴암과 가까이 있는 불국사가 신라시대인 경덕왕에서 혜광왕 시대에 걸쳐 대규모로 증창되었으며, 신라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수축되고 임진왜란 때에 불타 버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함께 구연하고 있다.

성격이 오히려 약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경상도 지역에 전승되는 <쌀 나오는 바위> 설화는 설화의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유명한 인물이나 기존의 지명 유래담과 결합하면서 쌀 나오는 바위 장소의 신이성이 강조되거나 먹을거리인 ‘쌀’의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역의 지명 유래담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인자 그 소문이 나 놓이 사람이 인자 우짜다가 마 하나씩 왔다가 인자 자는 사람도 있고, 어중간은 길이 되며 손님이 오며 손님 꺼 말이지 거어 나오는 기라. 그 둘 뭉 나오는 기라. 이러구로 하이까니 인자 뭐 큰 구녕이다 말이지, 구녕은 작아도, 손님이 많이 오며 많이 묵기 자꾸 나오이까니. 그래 그 절이 인자 성해지는데, 소문이 많이 나 놔 놓이 구경하러, 놀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인자 절이 참 그것이 크기 됐어. 근디 그 놀러 온 젊은 사램이 구경하러 와 가지고는 쌀 나오는 기 애터진다고 꼬쟁이로 이래 쑤시 놔 놓이까, 마 그 질로 안 나온다 카터마는.²³⁾

청도 운문사에 속해 있던 사리암에 대한 설화는 쌀 나오는 바위가 있던 장소가 후에 사리암의 절터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쌀이 나오던 사리암은 덕분에 형편이 나아져서 절에 오는 사람을 배불리게 먹고 후하게 대접하는 절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설화는 쌀 나오는 바위의 장소가 절의 터가 된다는 유래담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위에서 나오는 쌀로 절에 오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운문사 사리암에 대한 이야기를 구연하는 구연자는 쌀 나오는 바위의 신이함 보다는 절에서 사람들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넉넉한 양의 쌀이 나오지만 더 얻고 싶어서 바위

23) 『한국구비문학대계』 8-8(경남 밀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멍을 쭈신 이야기는 의상대사, 충신 박제상 이야기, 석굴암, 청도 운문사와 같은 잘 알려진 인물이나 절, 암자와 결합하여 구연되고 있다. 이러한 설화들은 불교와 관련된 인물 또는 충신의 인물, 또는 현재 유명한 절과 쉽게 결합하여 전승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유형의 <쌀 나오는 바위> 설화에서는 쌀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쌀 나오는 바위> 설화 중에서 필요 없는 내용을 빼고 설화를 구연하는 구연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인물이나 암자와 결합된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쌀 나오는 바위> 설화는 지역의 중요 문화재나 주요 유명한 인물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쌀 나오는 바위> 설화가 인물이나 문화재, 절과 긴밀하게 관련성을 맺으면서 문화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 종교적 진리, 충신과 열녀가 실현한 충과 열의 가치관, 베품과 나눔을 강조하는 것처럼 주로 높은 정신적 가치관을 중요시하고 있다.²⁴⁾ 그리고 이러한 점은 자연을 중시하는 전라도에 전승되는 설화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쌀 나오는 바위> 설화의 내용을 전승하면서 다양한 의미로 확대하고 있다. 의상대사가 나타나는 설화에서는 쌀이 나오는 신이한 바위가 있던 곳이 의상대사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있었다는 신성한 곳임을 드러내고 있다면, 은을암과 결합되어 있는 설화에서는 쌀 대신 나오는 ‘물’에 주목하여 기존 설화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석굴암의 경우 석굴암에서 쌀 대신 물이 나오면서 석굴암을 다시 증축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4) 설화는 짧고 함축적인 담화 속에 큰 흥미요소와 흡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간 보편의 원형적인 철학적 사유를 간직하고 있다. 화수분 관련 설화를 통하여 삶의 기본 원리로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과 조화, 인간과 인간, 문화와 문화의 공생과 조화가 우선적인 과제가 된다.(신동훈, 「설화 속 화수분 화소의 생태론적 고찰」, 『구비문학연구』 제3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4, p.24 참조.

청도 운문사와 결합된 설화에서는 쌀이라는 먹을 것을 통해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설화를 전승하고 있다. 인물담이나 지명유래담과 쉽게 결합하여 의미가 확대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라도 지역에 전승되는 <쌀 나오는 바위> 설화와 경상도 지역에 전승되는 <쌀 나오는 바위> 설화의 전승 양상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설화 몇 편을 가지고 지역의 특징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설화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지역의 특징이 더 다양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다양한 만큼 각 지역의 특징과 의미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지역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설화와 관련하여 두 지역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쌀 나오는 바위> 설화의 전승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이 설화의 표면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경계와 교훈을 전달하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설화의 전승 양상을 살펴보면 여러 지역에 널리 퍼져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이야기가 전승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쌀’이라는 소재가 인간에게 중요한 먹을거리라는 점에서 설화의 소재로 활용되기에 충분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유형의 설화가 전승된다는 것은 과거에 쌀이 귀했던 시대와는 의미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전승되는 설화에서 욕심에 대한 경계와 교훈의 의미가 탈락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교훈성이 강하게 나타났던 설화가 다른 의미로 변화되어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쌀 나오는 바위> 설화는 쌀 나오는 바위가 있는 장소의 영험함과 신이 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유래담이 결합되어 어떠한 형태로 변형되는지를 보여주는 설화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같은 유형의 설화가 다양한 의미로 전승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설화의 내용 외에도 지역이나 전승의식에 따라 다양한 설화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특히 구연자와 지역에 따라 전승되는 설화의 특성으로 지역의 특징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설화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구비문학대계』(1980~198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강진옥, 「한국전설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pp.1-287.
- 김복순, 「화수분설화에 투영된 기저 의식과 담론 양상」, 『동아시아고대학』 제31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3, pp.31-61.
- 신동훈, 「설화 속 화수분 화소의 생태론적 고찰」, 『구비문학연구』 제39집, 한국구비문학회, 2014, pp.1-28.
- 유증선, 「암석신앙전설」, 『한국민속학』 제2집, 민속학회, 1970, pp.53-68.
- 장영창, 「이야기의 서사적 변이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59집, 우리문학회, 2018, pp.211-238.
- 최상수, 『한국민족전설의 연구』, 성문각, 1985, pp.1-256.
- 최정락, 「영·호남 문학의 특성 고찰」, 『어문학』 제50집, 한국어문학회, 1989, pp.301-326.
- 최철배, 「〈쌀바위 전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 석사논문, 1996, pp.1-97.
- 황인덕, 「미혈전설의 구조와 의미고찰」, 『강주섭선생 회갑기념논총』, 경인문화사, 1992.
- 황인덕, 「영월 ‘술샘’ 전설의 장소성과 역사성」, 『구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구비문학회, 2004, pp.239-270.

Abstract

Regional Transmission Pattern and Meaning of the Oral Tales of
<Rock from Rice>

Ryu, Myeong-ok

The oral tales of *<Rock from Rice>* are widely circulat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ostensible meaning of a tale is a tale that comprises the guard and moral of "Don't be greedy." But if you look at the phenomenon wherein moral oral tales are not circulated now,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asons for circulating the oral tales *Rock from Rice*, which have been circulated so far at the oral site.

The oral tales of *<Rock from Rice>*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rice produced and the reason for the act of poking a hole in the rock. There's a type of story that many people have to share a small quantity, and there is a type that is wary of being greedy to have more, even though each has a given amount. The two types of oral tales are generally circulated according to the Jeolla-Do and Gyeongsang-Do regions, which are important in revealing the meaning of the tales.

The oral tales of *Rock from Rice* circulated in Jeolla-do says that there are still traces of rice, with the feature of acquiring sanctity by emphasizing that one's oral tales are true. The moral character stands out as a warning to the act of forcibly trying to gain what is not given to you while giving sacredness to the place where rice came from. Jeolla-do the oral tales see how important it is to adapt oneself to nature and to live according to your given means.

The oral tales of *Rock from Rice* in Gyeongsang-do is are circulated by combining famous temples and historical figures. It mainly describes the specific details of a temple or historical figure, as it is strongly

regarded as the story of origin of the name of a place. The moral character is weakened by the story of the origin of the name of a place and the combination of historical figures. They value spiritual and cultural aspects such as the Buddhist truth and loyalty and virtuous women's values.

Thus, the oral tales of Rock from Rice are not circulated in the sense of moral and guard about greedy behavior, it can be observed that it is circul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ese oral tales circulated are crucial in examin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Key Word: oral tales, <Rock from Rice>, regional differences, Jeollanam-do, Gyeongsang-do, regional community.

류명옥

소속: 부산외국어대학교 강사

전자우편: eden2020@hanmail.net

이 논문은 2020년 05월 25일 투고되어
2020년 06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6월 16일 게재 확정됨.